

# 액티브 시니어의 신체적 여가활동에서 동기부여 언어의 중요성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을 중심으로-

선준호 · 정선옥\* · 이규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

## Importance of Motivational Language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of Active Seniors -Senior Fashion Model Classes-

Joon-Ho Seon · Sun-Ok Jung\* · Kyu-Hye Lee†

Human-Tech Convergence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ept. of Model, Dongduk Women's University

Received October 30, 2023; Revised Novem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motivational language of instructors in senior fashion model classes affects learn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s well as their intention to continue participati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active seniors aged 50 and above,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LS-SEM and bootstrapping for mediation effects. It was found that autonomous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ask achievement goal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ut not on ego achievement goals. On the other hand, controlled motivation on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go achievement goals. Additionally, interpersonal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participating, and task achievement goal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is study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instructors' motivational language in senior fashion model education and learners' psychology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help develop a fashion-related leisure activity curriculum. It also suggests efficient instructional directions for instructors in senior education, and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fashion-related leisure activity program curricula in the future.

**Key words:** Active senior, Physical fashion leisure activities, Motivational languag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액티브 시니어, 신체적 패션 여가활동, 동기부여 언어, 성취목표성향, 대인관계 유능성

## I. 서 론

사회구조가 젊은 층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

는 시니어 시프트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 높은 수준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보이는 현대의 50~60세 중장년층을 뜻하며, 뉴 실버세대, 신 중년층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lee@hanyang.ac.kr

등으로도 불린다(Jung et al., 2022). 액티브 시니어는 과거의 시니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계층으로, 웰에이징 및 건강관리에 관한 욕구가 높고, 자기 계발과 문화예술, 취미생활에도 적극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Seon et al., 2021). 액티브 시니어는 생활양식이나 소비의식 등 다방면으로 과거의 시니어들과 구별되는 만큼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전 시니어 세대에게는 빈곤, 질병 등과 같은 신체적 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거론되었던 반면에 액티브 시니어에게는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정신적 건강 관련 문제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Seon et al., 2021). 인간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만큼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데 반해 은퇴 이후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되거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경험되는 부정적 감정이 심리적 문제로 연장되는 것이다(Kwak, 2010). 정부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심리적 문제 해결방책으로 각 지자체의 문화센터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Lee et al., 2020).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사회성 함양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e.g., Brown et al., 2008; Son, 2019; Standridge et al., 2020). 그중 신체를 활발히 움직이는 여가활동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향상, 나아가 사회적 경험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강화해줄 수 있기에 더욱 권장되고 있다(Blake et al., 2009).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의 신체적 여가활동 중에서도 근래 대중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패션모델 교육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개설된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은 모델 워킹의 기능적 측면을 습득함과 동시에 향후 모델로의 진출을 장려하는 교육과정이다(An et al., 2014). 그동안 액티브 시니어 대상의 신체적 여가활동은 주로 무용, 수영, 에어로빅, 골프 등과 같이 생활체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반면에 패션 분야에서는 규방공예, 가죽공예, 자수 등 실내 중심의 취미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 신체적 여가활동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니어의 웰에이징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패션

모델 교육과정의 활성화는 패션 관련 여가 산업의 기저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에게 있어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은 단순한 취미생활에서 나아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해주는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작용한다(Im et al., 2019). 또한 패션모델 교육과정은 참여 시니어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등 심리적 테라피 효과도 검증되었으며(An et al., 2014; Seon et al., 2021), 은퇴 이후의 소득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주목되고 있다(Yoo & Kim, 2023).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Padgett et al., 2008),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격려해 주는 교수자의 태도는 학습자의 몰입 정도를 향상시켜준다(Assor et al., 2002). 특히, 패션모델 교육과 같은 신체적 활동 경험에서 수반되는 몰입 경험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는 대인관계 변인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필요하다(Blake et al., 2009; Standridge et al., 2020). 선행연구에서도 시니어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e.g., Seon et al., 2021),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커리큘럼 구성과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대인관계 변인의 역할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변인 중에서도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에 집중하여 패션모델 교육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대개 어떠한 조직의 리더가 조직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하고 격려한다면 그 조직에 대한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조직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Cho, 2013). 즉, 리더의 동기부여 언어가 조직원의 태도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시니어 모델 교육과정의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동기부여 방식 또한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니어 모델 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가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취목표성향이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목표성향은 목표 달성이라

는 주된 동기부여를 통해 어떠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요인으로, 흔히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예측함으로써 학습 수행에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취목표성향과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는 상호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Maehr & Nicholls, 1980).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가 성취목표성향과 어떠한 인과적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대인관계 유능성, 지속적 참여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심리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의 정서적 케어와 더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생산적 방안을 모색하고, 패션 관련 여가활동 교안 수립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1. 동기부여 언어

동기부여란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과 타인이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힘이자 과정을 나타낸다(Gibson, 1966; Mescon et al., 1988). 동기부여는 관리자에게 있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이러한 조직원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부여하는 수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동기부여 언어’라 일컫는다(Mayfield et al., 1998). 동기부여 언어는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의 열정과 에너지, 방향성을 고무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조직의 지도자가 사용하는 동기부여적 언어는 조직원들이 보이는 성과와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Mayfield & Mayfield, 2009; Mayfield et al., 1998).

동기부여 언어는 크게 ‘방향 제시 언어’,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 ‘의미 부여 언어’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Mayfield et al., 1998). 방향 제시 언어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있어 조직원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주는 유형에 해당한다. 방향 제시 언어가 조직원에게 명확히 전달될 경우, 업무수행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물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Kim & Cho, 2013).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는 칭찬, 격려를 통한 방식으로, 조직원에게 관심과 격려, 칭찬과 같은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기를 고무시켜주는 언어이다. 지도자의 긍정적 언어 사용은 조직구성원들의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목표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Cho, 2013). 마지막으로, 의미 부여 언어는 조직의 규범과 기대를 바탕으로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를 말한다(Mayfield et al., 1998). 조직구성원들이 소속 집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의 문화나 흐름 등에 관해 말해주는 조언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동기부여 언어는 조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교육 분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이며, 교수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자에게 친밀감과 호감도, 설득력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Choi, 2015).

학습활동에서 사용되는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는 주로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와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e.g., Reeve, 2009; Soenens et al., 2009; Song et al., 2019).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학습자 개인의 견해와 관점을 존중할 뿐 아니라 자기주도성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의사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적극적 수용하고 지지하는 긍정적 언어이다(Reeve, 2009; Ryan & Deci, 2000). 이는 칭찬과 격려를 통한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와 의미 부여 언어가 혼합된 언어로 볼 수 있다. 교수자가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할 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조절 학습 및 학업성취,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e.g., Ryan & Deci, 2000; Kim & Kim, 2014; Cheon, 2012).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교수자가 원하는 일괄적 방식으로 학습자를 대하는 다소 강압적인 수단으로, 방향 제시 언어와 연관이 깊은 언어라 할 수 있다.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에는 학습자의 감정, 행동, 학습 목표 등에 대해 교수자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것이 해당되며, 교수자가 교육에 있어서 자신만의 교육관점을 관철하는 것은 통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Reeve, 2009). 즉, 교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활동을 학습자에게 강요하거나, 교수자의 결정 하에 주어진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처벌이나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제적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다(Cheon, 2012). 이는 외재적 동기의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학업 성취도와 참여도를 낮추는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g., Assor et al., 2005; Kim & Kim, 2014).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제적 동기부여를 단순히 부정적 요인이라 단언할 수는 없고,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Yang, 2000). 실제로 d'Ailly(2003)에 의하면 교수자의 통제를 학습자들이 정보제공 및 보살핌으로 인지하였고, 이는 곧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졌다. 교수자가 어떠한 동기부여 언어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어떠한 동기부여 언어가 시니어 대상의 교육활동에 효율적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2.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성향은 인간이 행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를 설계하는 목표로써, 어떤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지향의 정도를 나타낸다(Maehr, 1989). 이는 학습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유능감, 자기지각,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정의적 영역과도 연관이 깊다(Kim, 2015).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시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으로 구분된다. 과제성취성향은 학습목표지향으로도 불리며, 성취를 통해 보상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학습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성향을 말한다. 과제성취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노력과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성취감을 중시하며, 개인의 기량 상승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Nicholls, 1984). 반면에 자아성취성향은 수행목표지향으로도 불리는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두는 성향을 의미한다. 자아성취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을 피력하고자 하는 과시적 욕구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유능성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McCarthy, 2011). 또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보다 결과에 관심을 가지거나, 단기적 성과위

주의 전략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Yoon & Lee, 2015).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성취행동을 예측하고 조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Yang and Seol(202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여가활동에서 교수자의 지원이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더구나 Yoon and Lee(2015)는 리더의 방향 지시 언어가 수행목표지향에, 의미 부여 언어는 수행목표지향과 학습목표지향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나, 주관적 감정어입 언어는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동기부여는 집단 내 인정, 보상과 직결된 업무성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를 조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지각하며, 미래에 대한 조언은 성과를 통한 인정과 학습을 통한 성장 모두에 효율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지시 방식이 결과기대와 과제관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지도방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지시 방식이 긍정적 교사행동으로써 과제지식 탐색과 정서적 교류의 기회로 이어져 신체활동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며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Kim and Park(2017)는 동기부여 방식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높은 자율 낮은 통제 집단과 높은 통제 낮은 자율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뿐만 아니라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도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격려, 칭찬 등의 감정어입 언어보다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조언을 통한 미래지향적 동기부여 방식이 성취목표성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더불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경우, 방향 제시 언어로써 집단 내 인정 및 보상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라 단정 짓기보다는 다각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취목표성향은 인간의 내·외적 동기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내적 동기요인은 과제성취성향에, 외적 동기요인은 자아성취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pus et al., 2009; Prabhu et al., 2008). 내적 동기요인이 흥미 또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수행되는 요인이고, 외적 동기요

인이 결과나 목적에 의해 유발되며 보상을 추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각각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와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제적 동기부여는 학습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학습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액티브 시니어의 성향을 고려하면 직접적으로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 또한 그들의 성취목표성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와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 가설 1-1. 자율적 동기부여는 과제성취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자율적 동기부여는 자아성취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통제적 동기부여는 과제성취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통제적 동기부여는 자아성취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사회성, 의사소통 유능성, 관계 유능성 등과 맥락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다 (Spitzberg & Cupach, 2012). 대인관계 능력은 현대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다. 소속 집단 내에서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학습과 환경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화 및 성과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Higgins & Kram, 2001). 더구나 소속감 부여를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지각하거나,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안정감을 증진 시키는 등 정서적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 악화, 은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결핍이 초래된다. 노년기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결핍은 불안, 외로움, 우울 등 여러 심리적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Hwang & Chang, 2020),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여가활동을 통한 대인 접촉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이어져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켜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ark et al., 2007). 그중에서도 신체적 여가활동은 타인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협동심과 사교성, 대인관계 유능성 함양에 도움을 주며, 이는 노년기에 빈번히 유발되는 소외감, 사회부적응과 같은 부정적 심리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 Shin, 2008).

신체적 여가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Oh and Park(2019)에 따르면, 체육교과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접촉하는 기회가 타 교과보다 더 많아 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학생의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and Chang(2020)의 연구에서는 사격 선수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코치와 선수의 관계가 매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변인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간 인과적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기부여 언어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Kim & Cho, 2013; Mayfield & Mayfield, 2009; Mayfield & Mayfield, 2012). 시니어 패션 모델 교육과정 또한 체육교과와 유사한 교육환경으로써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여가활동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시니어 모델 교육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동기부여 언어도 학습자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유능성에는 동기부여 언어뿐만 아니라 성취목표성향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h, 2004; Lim et al., 2018). Huh(2004)는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목관리, 정서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과제지향성은 모든 자기관리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경쟁지향성은 어떠한 요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Lim et al.(2018)은 학습자들이 성공과 실

패의 반복적 수행에 따라 얻게 되는 경험적 요소가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자신을 표현하며, 주도적이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과제성취 성향과 자아성취성향 모두 대인관계 유능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 및 학습 태도와 유사한 개념인 성취목표성향은 각각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3. 자율적 동기부여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통제적 동기부여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과제성취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자아성취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 지각 및 정서적 관리 측면에 필요한 요소로 여겨지나, 일각에서는 여가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요인으로써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다(e.g., Hwang & Chang, 2020; Park, 2014). 지속적 참여의도는 교육 참여자가 학습활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로,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코치와 선수 간의 대인관계가 운동 지속의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 요소로 꼽힌다. 코치가 선수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이 지각하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운동에 대한 재미, 자신감 등이 향상되는 반면에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선수에게 있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기력 저하 및 운동 중단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Hwang & Chang, 2020). 이는 여가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인관계는 학습자의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참여의도의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운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수록 운동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료와의 관계가 원

만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단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 Kim, 2005). 또한 Hwang and Chang(2020)와 Park(201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이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Yoo and Kim(2023)의 연구에서는 시니어 모델 교육과정의 학습자 참여동기와 강사만족도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자와의 관계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교수자의 동기부여에 의해 영향을 받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지속적 참여의도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인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 참여의도에 이르는지 인과적 단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있어 성취목표성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변인 간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설 7-1. 과제성취성향은 자율적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7-2. 자아성취성향은 자율적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8-1. 과제성취성향은 통제적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8-2. 자아성취성향은 통제적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9. 대인관계 유능성은 지속적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모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안된 가설은 <Fig. 1>과 같이 연구모델로 나타내었다.

#### 2. 측정도구 구성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는 Williams et al.(1996)과 Woo(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 네 문항,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성취목표성향은 Ahn(2011)과 Lee(2019)의 연구에서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각각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Buhrmester et al.(1988)과 Warner(2007)를 참고하여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지속적 참여의도는 Lim(2018)과 Oh(2015)의 연구를 토대로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 직업, 학력의 다섯 문항이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는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남녀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기관들에 측정도구를 배포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 불일치 및 불성실한 응답이 확인된 40부를 제외하여 최종 2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ver. 25.0)을 통한 Varimax 주성분 분석을 1차로 실시하여 각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후 확정된 문항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PLS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2차로 실시하였다. 직접경로에 대한 검증은 SmartPLS(ver. 4.0) 통계 소프트웨어

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SPSS Process Macro(ver. 4.2)를 통해 이루어졌다.

###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이 1.00 이상인 여섯 요인이 도출되었다. 여섯 요인은 중복적재량이 높았던 여섯 문항이 제거되어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KMO 측도는 .75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chi^2=1654.998(df=171,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요인적재량의 분포는 .629-.884로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Cronbach's  $\alpha$  계수도 .627-.882에 분포하여 수용 가능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 5.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219명(84.2%), 남성이 41명(15.8%)였으며, 연령은 50대 140명(53.8%), 60대가 105명(40.4%), 70대 이상이 15명(5.9%)으로 구성되었다. 월평균 소득(불로소득 포함)은 100만원 미만이 19명(7.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7명(29.6%), 300만원 이상-5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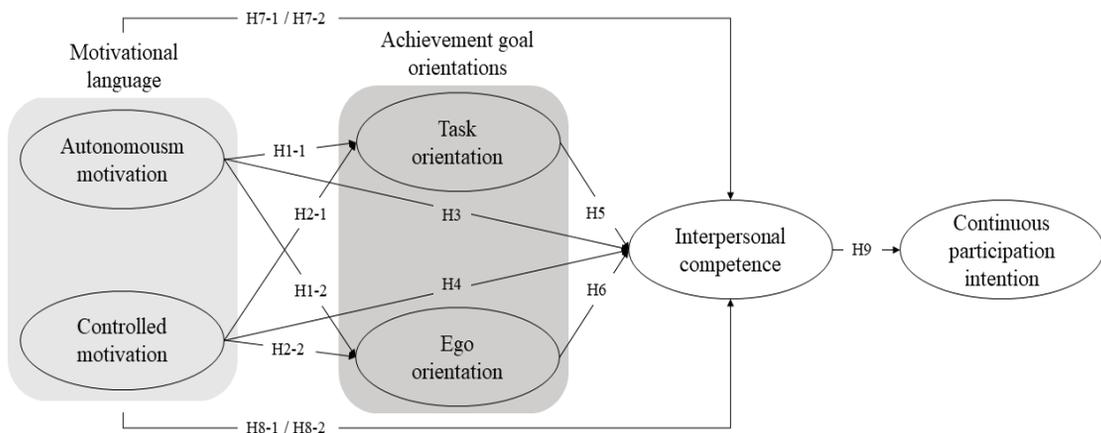


Fig. 1. Conceptual model of research variables and hypothesis.

원 미만 68명(26.1%), 50만원 이상은 96명(36.9%)로 분포되었다. 또한 직업에서는 자영업자가 49명(18.8%), 사무직 및 전문직이 50명(15.8%)이었고, 경영 및 서비스직이 21명(8.1%), 무직 및 은퇴가 140명(53.9%)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69명(26.5%)이 고등학교 졸업, 163명(62.7%)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28명(10.8%)이 대학원 졸업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직접경로 가설 검증

###### 1) 측정모델 평가

측정모델의 평가를 위해 집중타당성,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Table 3>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alpha$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I want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modeling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884	3.028	15.937 (15.937)	.882
	If there is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process in which I am participating, I will challenge it.	.833			
	I want to continue working as a model even after completing my education.	.826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model training and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820			
Autonomous motivation	That instructor always gives me options and opportunities when it comes to the lesson content.	.779	2.235	11.762 (27.699)	.723
	That instructor always instills confidence in me so that I can do well.	.745			
	The instructor encourages me to ask questions without hesitation.	.714			
	That instructor understands and respects me.	.629			
Ego orientation	When others can't perform as well as I do, I feel like I have outperformed them.	.848	2.126	11.187 (38.886)	.749
	When I succeed in something that my colleagues couldn't, I feel the most proud.	.804			
	When I come in first place or surpass others, I feel the most proud.	.733			
Controlled motivation	That instructor tends to insist on their own teaching methods.	.765	1.816	9.559 (48.445)	.627
	That instructor tends to micromanage everything I do.	.749			
	That instructor tends to pressure me during the lessons.	.715			
Task orientation	I feel the most proud when I give my best effort, rather than focusing on winning or losing.	.846	1.801	9.481 (57.926)	.666
	I feel the most proud when I learn new skills.	.676			
	I feel the most proud when I practice diligently to improve my skills.	.663			
Interpersonal competence	I make an effort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every time I meet someone.	.850	1.665	8.761 (66.687)	.719
	Getting to know new people is fun and enjoyable.	.786			
KMO=.758, $\chi^2=1654.998$ ( $df=171$ , $p<.001$ )					

**Table 2. Measurement model: Converge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Construct	Items	Outer loading	Cronbach's $\alpha$	CR	AVE
Autonomous motivation (AM)	AM 1	.753	.727	.829	.548
	AM 2	.802			
	AM 3	.706			
	AM 4	.696			
Controlled motivation (CM)	CM 1	.612	.642	.800	.576
	CM 2	.828			
	CM 3	.818			
Task orientation (TO)	TO 1	.646	.675	.812	.593
	TO 2	.835			
	TO 3	.816			
Ego orientation (EO)	EO 1	.827	.749	.853	.661
	EO 2	.884			
	EO 3	.719			
Interpersonal competence (IC)	IC 1	.863	.721	.877	.781
	IC 2	.904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CPI)	CPI 1	.901	.882	.918	.738
	CPI 2	.861			
	CPI 3	.879			
	CPI 4	.791			

**Table 3. Measurement model: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Fornell-Larcker criterion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AM	CM	TO	EO	IC	CPI	AM	CM	TO	EO	IC	CPI
AM	<b>.741<sup>a</sup></b>						-					
CM	-.272 <sup>b</sup>	<b>.759</b>					.383	-				
TO	.281	.043	<b>.770</b>				.376	.131	-			
EO	-.007	.236	.308	<b>.813</b>			.121	.322	.384	-		
IC	.273	-.097	.366	.138	<b>.884</b>		.369	.146	.476	.172	-	
CPI	.221	-.056	.270	.170	.358	<b>.859</b>	.280	.123	.356	.200	.434	-

a: Bold numbers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AVE for constructs.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wo constructs.

AM=Autonomous motivation, CM=Controlled motivation, TO=Task orientation, EO=Ego orientation, IC=Interpersonal competence, CPI=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문항의 외부적재량(outer loading)은 .612에서 .904로 분포되었다. Hair et al.(2009)에 따르면 외부적재량 값은 .7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기준치인 .500 이상일 경우 외부적재량의 판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Lee & Han, 2022). 본 연구

의 잠재변수별 AVE 값은 모두 .548 이상으로, 기준치를 상회함에 따라 집중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Table 2). 내적일관성 평가를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642-.882의 범위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수치도 .800-.918에 분포하여 높은 수준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Table 2). 마지막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척도와 다른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판별타당성은 Fornell-Larcker 기준과 HTMT 지수(heterotrait-monotrait ratio)로 평가하였다(Table 3). 측정모델의 Fornell-Larcker 기준을 살펴보면, 각 잠재변수별 AVE 제곱근 값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Fornell & Larcker, 1981). 또한 HTMT 지수의 경우 .850 미만일 때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Henseler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121-.476으로 분포되어 기준치를 충족함에 따라 다시금 판별타당성의 확보가 입증되었다.

## 2) 구조모델의 적합성 평가

PLS-SEM은 보편적으로  $R^2$ 과  $Q^2$ 을 통해 모델의 예측적 적합성을 평가한다(Shin, 2018).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비자행동 분야에서는  $R^2$  값이 .190 이상이면 예측적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Henseler et al., 2009).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R^2$  계수가 .059-.173에 분포하여 비교적 약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Q^2$ 은 구조모델이 특정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얼마나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값이 양수일 때 모델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Shin, 2018). SmartPLS 3.0에서는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 절차를 사용해  $Q^2$ 을 구했으나, 4.0 버전부터는 PLSpredict 절차를 통해 산출해야 한다. PLSpredict는 모형의 예측력 평가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며, PLS 구조방정식모델의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ir et al., 2019; Hair et al., 2022). PLSpredict를 통해 확보한  $Q^2$  계수의 해석은 기존의 블라인드폴딩 절차에 의해 얻은  $Q^2$  평가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Q^2$  값은 .026-.062로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적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PLS 구조모델의 적합도 평가 수단으로 제시되는 표준화 평균 제곱근 잔차(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지수도 .074로, 기준치인 .080 이하를 충족하여 모델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Henseler et al., 2016). 마지막으로, 잠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를 살펴본 바로는 모든 수치가 기준치인 5.00 미만(VIF=1.202-3.391)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ir et al., 2022).

## 3) 직접경로 검증

직접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PLS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시행하였다. PLS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서는 최소 5,000회 이상의 재샘플링이 권장되므로, 이를 준수하여 5,000번의 재샘플링을 실시하였다(Hair et al., 2022). 직접경로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Fig. 2>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과제성취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16, p<.001$ ), 자아성취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062, p=.488$ ). 이에 반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과제성취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beta=.129, p=.081$ ), 자아성취성향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beta=.252, p<.001$ ).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에 따른 주관적 성취감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의 견해와 관점을 지지하는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Reeve, 2009; Ryan & Deci, 2000). 반대로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학습자의 목표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전달하는 방향 제시 언어로써 즉각적인 성과와 보상을 추구하는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인지되었으나, 주관적 성취감을 추구하는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2-2는 지지되었고, 1-2와 2-1은 기각되었다. 이어서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가 학습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7, p<.05$ ).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beta=-.080, p=.304$ ), 가설 3은 지지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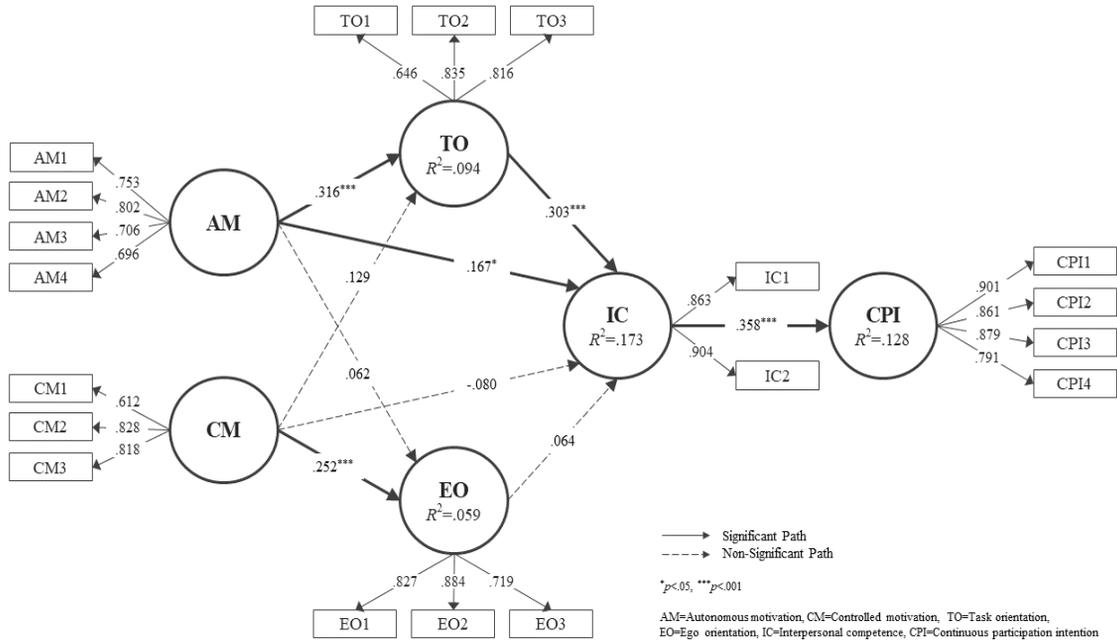


Fig. 2. PLS-SEM results.

Table 4. Direct path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Hypothesis	Direct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s ( $\beta$ )	S.E.	$t$	Results
H1-1	AM → TO	.316	.079	4.013***	Accepted
H1-2	AM → EO	.062	.090	.693	Rejected
H2-1	CM → TO	.129	.074	1.743	Rejected
H2-2	CM → EO	.252	.045	5.600***	Accepted
H3	AM → IC	.167	.069	2.402*	Accepted
H4	CM → IC	-.080	.078	1.028	Rejected
H5	TO → IC	.303	.075	4.021***	Accepted
H6	EO → IC	.064	.077	.839	Rejected
H9	IC → CPI	.358	.070	5.146***	Accepted

\* $p < .05$ , \*\*\* $p < .001$

AM=Autonomous motivation, CM=Controlled motivation, TO=Task orientation, EO=Ego orientation, IC=Interpersonal competence, CPI=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에서는 과제성취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나( $\beta = .303, p < .001$ ), 자아성취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beta = .064, p = .401$ ).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6은 기

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내·외적 동기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Corpus et al., 2009; Prabhu et al., 2008). 내적 동기요인은 흥미 또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수행되는 요인으로, 과제성취성향과 상호 연관이 높

다. 따라서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된다(Nicholls, 1984). 하지만 자아성취성향은 성과나 보상을 추구하는 외적 동기요인과 연관이 높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비교와 우월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McCarthy, 2011). 따라서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성취로 인해 개인의 만족감은 클 수 있겠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9는 지지되었다( $\beta=.358, p<.001$ ).

## 2. 간접경로 가설 검증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성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기반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랩 재샘플링 수는 권장 횟수를 준수하여 5,000번으로 실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을 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in, 2018). 간접경로의 검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에 대한 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에서 과제성취성향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LLCI: .006, ULCI: .107). 하지만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LLCI: -.017, ULCI: .011), 자아성취성향은 자율적 동기부여(LLCI: -.024, ULCI: .048)와 통제적 동기부여(LLCI: -.023, ULCI: .052)의 모든 경로에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의사와 감정, 행동을 지지하는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 사용은 학습자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시킴으로써 성취감 높은 학습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이윽고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칭찬, 격려 등의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를 통한 방식이 조직원의 사기를 높여준다고 하였던 Kim and Cho(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 결과적으로 가설 7-1만이 지지되었고, 가설 7-2, 8-1, 8-2는 기각되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시니어 대상의 신체적 여가활동인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의 교육환경에서 교수자가 사용하는 동기부여 언어가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 참여 의도와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과제성취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성취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여는 자아성취성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수자가 전달하는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고무시켜주는 효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ypothesis	Indirect path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E.	Total effect	Confidence interval 95%		Results
					LLCI	ULCI	
H7-1	AM → TO → IC	.043	.026	.193**	.006	.107	Accepted
H7-2	AM → EO → IC	-.001	.006	.148	-.017	.011	Rejected
H8-1	CM → TO → IC	.010	.018	-.037	-.024	.048	Rejected
H8-2	CM → EO → IC	.010	.019	-.037	-.023	.052	Rejected

\*\* $p<.01$

AM=Autonomous motivation, CM=Controlled motivation, TO=Task orientation, EO=Ego orientation, IC=Interpersonal competence

울적인 학습효과를 제공해 준다(Cheon, 2012; Kim & Kim, 2014; Ryan & Deci, 2000). 이로 미루어 보면, 본 연구결과는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시니어일수록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 함양에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경우,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이는 통제적 동기부여의 긍정적 측면을 통찰하였던 d'Ailly(2003)와 Yang(2000)와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결과로, 통제적 동기부여가 성취도와 참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Assor et al.(2005)과 Kim and Kim(2014)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자아성취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자신의 유능성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확실한 성과 창출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교수자가 다소 통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편이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물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지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크게 과제성취성향의 매개적 역할과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긍정적 역할 규명의 두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과제성취성향이 이를 매개하는 인과적 관계가 검증되었다.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와 자아성취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인 참여의도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칭찬, 격려 등에 기반한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의 행동은 학습자가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시켜 성취감 높은 학습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지속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지도법임을 의미한다. 다만,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보다 과제성취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았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보다는 과제성취성향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과제성취성향-대인관계 유능성이 연쇄적 관계에 있을 때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의 독립적인 역할보다 학습자의 학습 성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더욱 고려해야 함이 강조된다.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부여 언어임이 규명되었으나,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개 학습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이 보고되었다(e.g., Assor et al., 2005; Kim & Kim, 2014).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자아성취성향과 긍정적 관계에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학습자마다 추구하는 학습가치와 성취성향이 다르므로 개인에게 효율적인 동기부여 언어에도 차이가 있으며, 통제적 방식이 반드시 부정적 효과로 발현된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더구나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율적 동기부여보다는 개인의 승부욕을 자극시킬 수 있는 통제적인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시니어의 신체적 여가활동에서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한 동기부여 언어를 통해 알맞은 성취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취목표성향은 학습자의 내적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적 변수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동기부여 언어 선택에 앞서 학습자 개개인이 어떠한 성취목표성향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학습 효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서 주목하여 교육에서 얻는 성취감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였다. 또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동기부여 언어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이 시니어들의 심리적 테라피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실질적인 소득 활동으로 이어져 고령화 문제에도 활용될 수 있는 현시점에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찰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을 지닌다. 이는 향후 시니어 대상 교육에 임하는 교수자의 역할과 지도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며, 패션 관련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교안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시니어에게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동인으로 사회적 은퇴에 따른 목표의식 저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가 거론되고 있다(e.g., Kwak, 2010; Seon et al., 2021). 이러한 시점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동기부여 언어의 중요성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여가활동에서 나아가 시

니어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동력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아성취성향 이외 다른 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만을 고찰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통제적 동기부여를 정보 제공 및 보살핌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로 미루어 보면 자아성취성향 뿐만 아닌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Ailly, 2003). 또한 본래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변인의 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동기부여 언어와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를 연결해줄 더욱 폭넓은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해볼 것을 제안한다.

#### 1. 사사

이 논문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 가능함.

####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 6. 저자의 기여

JHS는 연구 설계 및 데이터 분석과 원고 작성을 담당하였고, SOJ는 연구 설계와 데이터 수집을, KHL은 데이터 해석과 연구 전반의 검토를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 7. 저자 정보

**선준호**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박사수료

**정선옥**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 조교수

**이규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교수

## References

- Ahn, C. (2011).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class immers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the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n, M., Chung, S., & Kim, D. (2014).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senior model program: A focus on lifesty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physical self efficacy, and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1), 66–79. <https://doi.org/10.12940/jfb.2014.18.1.66>
- Assor, A., Kaplan, H., & Roth, G. (2002). Choice is good, but relevance is excellent: Autonomy-enhancing and suppressing teacher behaviours predicting students' engagement in schoolwork.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2), 261–278. <https://doi.org/10.1348/000709902158883>
- Assor, A., Kaplan, H., Kanat-Maymon, Y., & Roth, G. (2005). Directly controlling teach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poo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anger and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15(5), 397–413.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05.07.008>
- Blake, H., Mo, P., Malik, S., & Thomas, S. (2009). How effective are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for alleviating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Rehabilitation*, 23(10), 873–887. <https://doi.org/10.1177/026921550933744>
- Brown, C. A., McGuire, F. A., & Voelkl, J. (2008). The link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serious leis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1), 73–95. <https://doi.org/10.2190/AG.66.1.d>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 Cheon, S.-H. (2012). Teacher motivating style,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emotional engagement in physical educat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14(2), 35–49. <https://doi.org/10.21797/ksme.2012.14.2.004>
- Choi, H.-S. (2015).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skills of the senior sports leaders attribute on emotional reactions and positive self-management of participating senio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2), 441–450.
- Corpus, J. H., McClintic-Gilbert, M. S., & Hayenga, A. O. (2009). Within-year changes in children'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Contextual predictors and academic outcom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

- chology*, 34(2), 154–166. <https://doi.org/10.1016/j.cedpsyc.2009.01.001>
- d'Ailly, H. (2003). Children's autonomy and perceived control in learning: A model of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Taiw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84–96. <https://doi.org/10.1037/0022-0663.95.1.8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ttps://doi.org/10.2307/3151312>
- Gibson, J. L. (1966). Organization theory and the nature of man.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9(3), 233–245. <https://doi.org/10.2307/25512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earson Education.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22).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PLS-SEM)* (3rd ed.). Sage Publications.
- Hair, J. F., Risher, J. J., Sarstedt, M., & Ringle, C. M. (2019). When to use and how to report the results of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31(1), 2–24. <https://doi.org/10.1108/EBR-11-2018-0203>
- Henseler, J., Hubona, G., & Ray, P. A. (2016). Using PLS path modeling in new technology research: Updated guideline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6(1), 2–20. <https://doi.org/10.1108/IMDS-09-2015-0382>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1), 115–135. <https://doi.org/10.1007/s11747-014-0403-8>
- Henseler, J., Ringle, C. M., & Sinkovics, R. R. (2009).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in international marketing. In R. R. Sinkovics, & P. N. Ghauri (Eds.), *New challenges to international marketing* (pp. 277–319).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https://doi.org/10.1108/S1474-7979\(2009\)0000020014](https://doi.org/10.1108/S1474-7979(2009)0000020014)
- Higgins, M. C., & Kram, K. E. (2001). Reconceptualizing mentoring at work: A developmental network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264–288. <https://doi.org/10.5465/amr.2001.4378023>
- Huh, J.-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goal orientation and athletic self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5(3), 127–135.
- Hwang, S., & Chang, D.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hoot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exercise adherence and dropou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Sport Science*, 38(2), 91–104. <http://doi.org/10.46394/ISS.38.2.9>
- Im, S., Bae, J., Lee, S., & Heo, J. (2019). Rediscovering the lost self through senior modeling: A grounded theory. *Journal of Leisure Studies*, 17(3), 43–63. <https://doi.org/10.22879/slos.2019.17.3.43>
- Jang, H.-J., & Shin, H.-G. (2008). Relationship between of participation of leisure spor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4, 681–690. <https://doi.org/10.51979/KSSLS.2008.11.34.681>
- Jung, S.-O., Seon, J.-H., & Lee, K.-H. (2022). Mediating role of physical confid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appearance management of active seniors. *Asian Journal of Beauty Cosmetology*, 20(2), 203–211. <http://dx.doi.org/10.20402/ajbc.2022.0011>
- Kim, B., & Park, S. (2017). The impacts of motivating style on vitality and academic attainment in university students: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Wellness*, 12(3), 39–49. <https://dx.doi.org/10.21097/ksw.2017.08.12.3.39>
- Kim, E.-J., & Cho, T.-J. (2013). The effects of leader's motivational language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4), 1–25. <https://doi.org/10.18211/kjhrdq.2013.15.4.001>
- Kim, H.-J. (2015). The influences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flow.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155–178.
- Kim, J. Y., & Kim, A. (2014). Teacher's conditional regard, autonomy support, and elementary students' self-determined motivation as predictors of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2), 251–268.
- Kwak, Y.-G. (2010).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senior'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n the social relationship: Example by dance sports participant.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4(3), 27–42.
- Lee, D. B. (2019). *A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the exercise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for health program particip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Lee, M., & Han, K. H.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body image in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ag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6(6), 1023–1038. <https://doi.org/10.5850/JKSCT.2022.46.6.1023>
- Lee, S.-H., Kwak, J.-H., & Seok, R.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un factors, physical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appiness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life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28(4), 537–

544. <https://doi.org/10.34284/KJGD.2020.11.28.4.537>
- Lim, S. Y. (2018). *The relationship on sport values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of the dance for all participants according to experience economics theory: Focused on the aesthetic understanding in s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Lim, S.-J., Ahn, S.-W., & Lee, C.-H. (2018). An analysis on structural model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ttitude toward physical edu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3), 443–459.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3.443>
- Maehr, M. L. (1989). Thoughts about motivation.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Goals and cognitions (Vol. 3)* (pp. 299–315). Academic Press.
- Maehr, M. L., & Nicholls, J. G.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2*, 221–267.
- Mayfield, J. R., Mayfield, M. R., & Kopf, J. (1998). The effects of leader motivating language on subordinate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37*(3–4), 235–248. [https://doi.org/10.1002/\(SICI\)1099-050X\(19982/3/4\)37:3/4<235::AID-HRM6>3.0.CO;2-X](https://doi.org/10.1002/(SICI)1099-050X(19982/3/4)37:3/4<235::AID-HRM6>3.0.CO;2-X)
- Mayfield, J., & Mayfield, M. (2009). The role of leader motivating language in employee absenteeism. *The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46*(4), 455–479. <https://doi.org/10.1177/0021943609338665>
- Mayfield, J., & Mayfield, 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motivating language and self-efficacy: A partial least squares mode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49*(4), 357–376. <https://doi.org/10.1177/0021943612456036>
- McCarthy, J. J. (201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and mindfulness in collegiate athletics.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5*(1), 44–57. <https://doi.org/10.1123/jcsp.5.1.44>
- Mescon, M. H., Albert, M., & Khedouri, F. (1988). *Management*. Harper & Row Publishers.
- Nicholls, J. G. (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3), 328–346. <https://doi.org/10.1037/0033-295X.91.3.328>
- Oh, J. (2015). *The impact of sport participant'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on enjoyment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Oh, J., & Park, C. (2019). Causal relationship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sports instructors' passion in class, students' learning attitude, and their sociality.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5*(3), 77–90. <https://doi.org/10.26844/ksepe.2019.25.3.77>
- Padgett, D. K., Henwood, B., Abrams, C., & Drake, R. E. (2008). Social relationships among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serious mental illness, substance abuse, and homelessness: Implications for recove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3), 333–339. <https://doi.org/10.1037/a0014155>
- Park, J.-G., Lim, R.-H., & Jeong, S.-C.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activities type and anxiety of soci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9*, 637–648. <https://doi.org/10.51979/KSSLS.2007.05.29.637>
- Park, K.-B. (2014). *The impact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in social dance spor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posi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Prabhu, V., Sutton, C., & Sauser, W. (2008). Creativity and certain personality traits: Understand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1), 53–66. <https://doi.org/10.1080/10400410701841955>
- Reeve, J. (2009). Why teachers adopt a controlling motivating style toward students and how they can become more autonomy suppor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44*(3), 159–175. <https://doi.org/10.1080/00461520903028990>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https://doi.org/10.1006/ceps.1999.1020>
- Seo, H.-J., & Kim, Y.-J.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sport participation, athlet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and withdrawal of adolescent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2), 97–107.
- Seon, J.-H., Jung, S.-O., & Lee, K.-H. (2021). Building a runway to subjective happiness: The role of fashion modeling classes in promoting seniors'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4), 13144. <https://doi.org/10.3390/ijerph182413144>
- Shin, G. K. (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Modeling of SmartPLS 3.0 structural equation]. Chungnam.
- Soenens, B., Vansteenkiste, M., & Sierens, E. (2009). How ar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support related?: A cluster-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187–20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8.00589.x>
- Son, J.-Y. (2019).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lf-concept,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female elderly participating in life spor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 Women*, 33(2), 71–90. <https://doi.org/10.16915/jkapesgw.2019.6.33.2.71>
- Song, K.-H., Lim, H.-M., & Kim, S.-Y. (2019). Test of relation model between teachers' motivation styles and outcome expectancy, task engagement for prediction of their achievement behavior in physical educa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8(2), 797–810. <https://doi.org/10.35159/kjss.2019.04.28.2.797>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12).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tandridge, S. H., Dunlap, R., & Hamilton, G. (2020). Retirement and flow: Can the casual leisure pursuits of older adults in retirement create the experience of flow?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44(3), 192–209. <https://doi.org/10.1080/01924788.2019.1651177>
- Warner, J. (2007).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HRD Press.
- Williams, G. C., Grow, V. M., Freedman, Z. R., Ryan, R. M., & Deci, E. L. (1996). Motivational predictors of weight loss and weight-loss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15–126. <https://doi.org/10.1037/0022-3514.70.1.115>
- Woo, Y.-R. (2018).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ivating style in the effect of motivation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on learning engagement and satisfaction: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related stu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 Yang, M. H. (200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Yang, W., & Seol, S.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 support,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for baby-boom generation leisure sport participation.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 12(1), 61–70. <https://doi.org/10.37408/kjls.2021.12.1.61>
- Yoo, K. B., & Kim, S. Y. (2023). The influences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of the learner of the senior model education program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the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3(4), 481–505. <https://doi.org/10.31888/JKGS.2023.43.4.481>
- Yoon, S. H., & Lee, J. 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leader's motivational languag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employees' job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17(1), 25–55.